

# “우리나라 최고인쇄사 자금 내 손안에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던 날 보진재 경리과에 근무하는 이순임 대리를 만났다. 91년 11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보진재에 입사한 후 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불이 발 그레하던 소녀를 성숙한 여성으로 탈바꿈시켰다.

10여년동안 그녀는 영업파트를 거쳐 경리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해 7월 대리로 승진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겪었다. 그녀 뿐 아니라 보진재도 변화를 거듭했다. 파주출판단지로 이사 온 것이 가장 큰 변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먼 건 아닌가 하구요. 그런데 당산역에서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30~40분 정도밖에 안걸리더라고요. 공기도 좋구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조금은 삭막한 분위기지만 봄이나 여름에는 얼마나 끝내주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쇄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보진재고 보니 직원만도 150명이 넘고, 관련업체가 1백여군데가 넘는다. 한달평균 3~5억원의 돈이 그녀의 손에서 움직이기에 매입매출이며, 전표정리를 하다보면 하루해가 금방 지나가고 특히 월말이나 월초에는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중간에 쉬는 날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보진재가 코스닥에 등록돼 있어 3개월에 한번씩은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는 그녀지만 항상 웃음을 안고 산다.

“업무적으로는 회계공부를 하고 싶어요. 친오빠가 얼마전에 회계사시험에 합격했는데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회사의 어떤 회계업무라도 척척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착실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혹시 저랑 사귀실 분 어디 없나요?”

〈임남숙기자〉

보진재 경리과 이순임 대리

